

라이프니츠의 법칙과 헤세이티즘(Haecceitism)¹⁾

손병홍

(한림대 철학과 부교수)

요약 개체들의 개별화를 위한 대표적인 법칙으로 간주되고 있는 라이프니츠의 법칙은 철학에서만 아니라 수학이나 논리학과 같은 순수과학에서도 중요한 법칙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 들어서 라이프니츠의 법칙은 그 논리적 위상과 관련하여 심각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러한 논란의 근본적 원인은 칸트나 블랙과 같은 철학자들에게 의해 라이프니츠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을 보이는 반례가 제시되었고, 많은 철학자들이 이에 동조한 데에서 찾을 수 있다.

라이프니츠의 법칙의 논리적 위상과 관계된 철학자들의 입장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첫 번째 입장은 블랙 등에 의해 제시된 예들을 라이프니츠의 법칙에 대한 정당한 반례로 간주하는 입장이고, 두 번째 입장은 이러한 예들은 라이프니츠의 법칙에 대한 반례로 간주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두 번째 입장을 취하는 대표적 철학자는 헛킹이다. 헛킹은 시공간에 대한 인습주의에 입각하여 블랙 등에 의해 제시된 예는 완전한 가능성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라이프니츠의 법칙은 가능세계에 대한 메타 원칙으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본고에서 필자는 라이프니츠의 법칙을 옹호하려는 헛킹의 시도는 성공적이지 못하고, 또한 블랙 등에 의해 제시된 예들은 라이프니츠의 법칙에 대한 정당한 반례로 간주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개진하고 있다. 필자가 이러한 입장을 취하게 된 것은 헛킹의 입장은 논리적 가능성과 물리적 가능성 사이의 구별을 어렵게 한다는 문제점 이외에도 가능세계 의미론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점들을 야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능세계 의미론과 관련된 문제점은 이러한 시도는 가능세계 의미론에 입각한 양상명제들의 해석의 범위를 제한하게 만들고 De-Re 양상명제에 대한 해석을 위해 필수적인 헤세이티즘의 수용을 불가능하게 한다는 것이다.

주 개별화의 법칙, 구별불가능자의 동일성 원칙, 동일자의 구별불가능성 원칙, 헤세이티즘, 가능세계, 시공간에 대한 인습주의

I

전통적으로 라이프니츠의 법칙은 개체들의 개별화를 위한 대표

1) 본고는 한국학술진흥재단이 지원한 1997년도 학술연구조성비에 의해 수행된 학술 연구의 결과로 작성되었다.

적인 법칙으로 간주되어 왔다. 또한 이 법칙은 철학에서만이 아니라 수학이나 논리학과 같은 순수과학에서도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한 예로 ‘=’를 포함한 1차 술어논리에서의 자연연역(natural deduction) 체계에서는 하나의 공리적 법칙으로서 라이프니츠의 법칙이 사용되고 있다.²⁾ 그러나 최근에 들어와서 이러한 중요성과 유용성에도 불구하고 라이프니츠의 법칙은 그 논리적 위상과 관련해서 심각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1952년에 블랙(M. Black)이 라이프니츠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을 보이는 반례를 제시했고³⁾ 많은 철학자들이 이에 동조했기 때문이다. 블랙의 반례에 대한 철학자들의 입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는 블랙의 주장을 받아들여 라이프니츠의 법칙은 필연적인 참이 될 수 없다고 보는 입장이고, 두 번째는 그의 예가 라이프니츠의 법칙에 대한 진정한 반례로 성립될 수 없다는 것을 보임에 의해 라이프니츠의 법칙을 옹호하는 입장이다.⁴⁾

후자의 입장을 취하는 대표적 철학자는 헛킹(I. Hacking)이다.⁵⁾ 그는 블랙의 예는 완전한 가능성을 나타낸 것이 아니므로 라이프니츠의 법칙이 필연적 참이 아니라는 것을 보이는 반례로 간주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블랙과 헛킹 등에 의해 야기된 라이프니츠의 법칙의 논리적 위

2) 한 예로 ‘=’를 포함한 1차 술어논리에서 다음의 논증형식은 타당한 논증형식이다.

$$\frac{a=b}{\frac{Pa}{Pb}}$$

3) M. Black, "The Identity of Indiscernible", *Mind*(1952), 153~64쪽.

4) B. Russel, A. Whitehead, B. Brody 등이 라이프니츠의 법칙이 필연적 참임을 주장하는 대표적 철학자들이다. 이에 대해서는 아래의 글들을 참조하라; B. Brody, *Identity and Essence*(Princeton Univ Press., 1980.), A. Whitehead and B. Russel, *Principia Mathematica to 56*(Cambridge Univ. Press, 1970.), B. Russell, *An Inquiry into meaning and Truth*(Baltimore: Penguin, 1972.).

5) I. Hacking, "The Identity of Indiscernibles", *J. P.*(1975), 249~56쪽.

상과 관계된 논란은 철학적으로 중요한 함축을 하고 있다. 우선 라이프니츠의 법칙이 필연적 참이 아니라면 한 개체를 다른 개체들로부터 구별하는 개별화의 법칙으로서의 라이프니츠의 법칙의 타당성이 문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라이프니츠의 법칙은 양상논리의 의미론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라이프니츠의 법칙의 타당성 여부는 양상논리의 의미론이 근거하고 있는 기본 개념인 '가능세계'에 대한 이론들의 성립 여부에 관한 문제와 밀접하게 연결된다.

블랙과 헛킹 등에 의해 야기된 라이프니츠의 법칙의 논리적 위상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탐구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본고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뉜다. 첫 번째 부분에서는 라이프니츠의 법칙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위해 이 법칙의 적용 범위와 한계, 그리고 이 법칙이 함축하는 내용에 대한 논리적 분석이 이루어질 것이다. 두 번째 부분에서는 칸트(I. Kant)⁶⁾와 블랙 등에 의해 제시된 라이프니츠 법칙에 대한 반례들을 분석하고, 이어서 라이프니츠의 법칙에 대한 헛킹의 옹호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마지막 부분에서는 헛킹의 주장의 타당성 여부를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라이프니츠의 법칙과 가능세계 의미론과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겠다.

II

개체의 구분이나 개체의 동일성을 결정하는 근거로 사용되는 라이프니츠의 법칙은 구별 불가능자의 동일성 원칙(Principle of Identity of Indiscernibles)과 동일자의 구별 불가능성의 원칙(Principle of Indiscernibility of Identicals)의 두 가지로 구분된다. 구별이 불가능한 개체들은 하나의 동일한 개체라는 구별 불가능

6) I. Kant, *Critique of Pure Reason*, A236f(B319f).

자의 동일성 원칙과 동일한 개체는 구별이 불가능하다는 동일자의 구별 불가능성의 원칙은 2차 술어논리에서 각기 아래의 PII와 CPII로 표현될 수 있다.

$$\text{PII} : \text{구별불가능자의 동일성 원칙}$$

$$(\forall x)(\forall y)((\forall P)(Px \leftrightarrow Py) \rightarrow x = y)$$

$$\text{CPII} : \text{동일자의 구별불가능성 원칙}$$

$$(\forall x)(\forall y)(x = y \rightarrow (\forall P)(Px \leftrightarrow Py))$$

쉽게 알 수 있듯이 PII는 PII'와 CPII는 CPII'와 논리적 동치이다.7)

$$\text{PII}' : \sim(\exists x)(\exists y)((\forall P)(Px \leftrightarrow Py) \& x \neq y)$$

$$\text{CPII}' : \sim(\exists x)(\exists y)(x = y \& \sim(\forall P)(Px \leftrightarrow Py))$$

라이프니츠의 법칙의 2차 술어논리에서의 표현인 PII와 CPII를 읽는 대표적인 방식은 A)이다.

- A) PII : 모든 개체 x와 y에 대해서 x와 y가 모든 속성을 공유하고 있으면 (x가 가진 모든 속성을 y가 가지고 있고 y가 가진 모든 속성을 x가 가지고 있으면) x와 y는 동일한 개체이다.
- PII' : 모든 속성을 공유하고 있는 동일하지 않은 두개의 개체 x와 y는 존재하지 않는다.
- CPII : 모든 개체 x와 y에 대해서 x와 y가 동일한 개체이면 x와 y는 모든 속성을 공유하고 있다.(x가 가진 모든 속성을 y가 가지고 있고 y가 가진 모

7) PII와 PII' 그리고 CPII와 CPII'이 논리적 동치라는 것은 쉽게 증명될 수 있다. 한 예로 PII와 PII'이 논리적 동치임은 아래와 같이 증명된다.

$$(\forall x)(\forall y)((\forall p)(Px \leftrightarrow Py) \rightarrow x = y)$$

$$\sim(\exists x)\sim(\forall y)((\forall p)(Px \leftrightarrow Py) \rightarrow x = y)$$

$$\sim(\exists x)(\exists y)\sim((\forall p)(Px \leftrightarrow Py) \rightarrow x = y)$$

$$\sim(\exists x)(\exists x)\sim(\sim(\forall p)(Px \leftrightarrow Py) \vee x = y)$$

$$\sim(\exists x)(\exists y)((\forall y)(Px \leftrightarrow Py) \& x \neq y)$$

든 속성을 x 가 가지고 있다.)

CPII' : 적어도 하나의 속성을 공유하고 있지 않은 동일한 개체로서의 x 와 y 는 존재하지 않는다.

PII와 논리적 동치인 PII'에 대한 대표적인 해석인 A)에 따르면 모든 속성을 공유하고 있는 두 개의 개체는 성립하지 않는다. 즉 PII에 따르면 만약 두 개의 개체 x 와 y 가 소유한 속성들이 동일하다면 x 와 y 는 하나의 동일한 개체이다. 그러므로 PII는 개체들이 소유한 속성들이 동일해야 하는 것(개체들의 속성의 차이에 따른 구별 불가능성)을 동일한 개체이기 위한 기준으로 삼고 있는 원칙이라 할 수 있다.

반면에 CPII와 논리적 동치인 CPII'에 대한 대표적 해석인 A)에 의하면 하나의 개체 x 가 다른 개체 y 가 소유한 속성들과 적어도 하나의 다른 속성을 가지고 있으면 x 와 y 는 동일한 하나의 개체일 수 없다. 즉 CPII에 따르면 x 와 y 가 동일한 하나의 개체이면 그들이 소유한 속성들은 동일해야 한다. 따라서 CPII는 동일한 하나의 개체임을 개체들이 소유한 속성들의 동일성을 위한 기준으로 삼고 있는 원칙이라 할 수 있다.

PII와 CPII로 표현되는 라이프니츠의 법칙은 흔히 개체들을 구분하는 원칙이나 개체의 동일성을 결정하는 원리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라이프니츠의 법칙은 시간 속에서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는 개체들에 대해서는 적용될 수 없는 법칙이다. 모든 물리적 개체들은 필연적으로 시간 속에서 변화의 과정을 겪을 것이므로 동일한 개체일지라도 서로 다른 시간에 서로 다른 속성들을 가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한 개체 a 가 시간 t 에서 속성 P 를 포함하여 일련의 속성들을 소유하고 있다고 가정하자. 이 경우에 t 이후의 시간 t' 에서 동일한 개체 a 가 속성 P 대신에 새로운 속성 Q 를 소유하게 되는 것은 가능하고 실제로 흔히 발생하고 있는 사

건이다. 이 경우에 라이프니츠의 법칙이 적용될 수 없음은 명백하다. t 에서의 a 와 t' 에서의 a 는 비록 서로 다른 속성을 가졌을지라도 동일한 하나의 개체이므로 시간 t 에서의 a 는 a' 로, 시간 t' 에서의 a 는 a'' 로 대체하면 우리는 다음의 결과를 얻게 되기 때문이다.

$$\begin{aligned} \text{B)} \quad & 1) \sim (\forall P)(Pa' \leftrightarrow Pa'' \rightarrow a' = a'' \\ & 2) a = a'' \rightarrow \sim (\forall P)(Pa' \leftrightarrow Pa'') \end{aligned}$$

B)에서 a' 와 a'' 는 동일한 하나의 개체이므로 B)의 1)은 PII의 반례이고, B)의 2)는 CPII의 반례이다. 따라서 라이프니츠의 법칙은 개체들의 통시간적 동일성(Trans-temporal Identity)을 위한 원칙이 될 수 없고 통시간적이 아닌 고정된 일정한 시간에서만 적용될 수 있는 원칙으로 한정되어야 한다.

라이프니츠의 법칙을 통시간적이 아닌 경우에만 적용될 수 있도록 한정할지라도 PII와 CPII를 읽는 대표적인 방식인 A)는 2차 양화변수인 P 의 해석과 관련하여 어려움을 야기한다. 우선 변수 P 에 대체될 수 있는 대상들을 한 자리 술어 기호에 해당하는 좁은 의미의 속성으로 제한하여 관계들을 배제한다면, PII와 CPII는 개체의 구분이나 개체의 동일성을 설명하는 적합한 원칙이 아니게 된다. 동일한 속성들을 가진 하나 이상의 개체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동일한 재질로 구성되어 있는 두 개의 인공물 a 와 b 가 동일한 모양과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a 는 일정한 지점 X 에 있고 b 는 X 와 다른 지점인 Y 에 있다면, a 가 소유한 좁은 의미에서의 속성들은 b 가 소유한 속성들과 동일할 것이다. 그러나 a 와 b 는 일정한 한 시간에 서로 다른 지점에 존재하는 개체들이므로 a 와 b 는 서로 다른 개체이어야 한다. 이 경우에 PII와 CPII는 성립하지 않는다. 아래의 C)에서 보듯이 PII의 경우 전건이 만족하는 데도 후건이 만족되지 않고 CPII의 경우 전건이 만족되지 않는데

도 후건이 만족되기 때문이다.⁸⁾

$$\begin{aligned} \text{C)} \quad & (\forall P)((Pa \leftrightarrow Pb) \rightarrow a \neq b) \quad (\text{PII의 경우}) \\ & a \neq b \rightarrow (\forall P)(Pa \leftrightarrow Pb) \quad (\text{CPII의 경우}) \end{aligned}$$

따라서 PII와 CPII가 개체의 구분이나 개체들의 동일성을 설명해주는 적절한 원칙이기 위해서는 P에 대체될 수 있는 대상들이 좁은 의미의 속성들로 국한되지 않아야 된다. 반면에 변수 P에 대체될 수 있는 속성들을 관계들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확장하여 해석하면 속성들을 좁은 의미로 해석했을 때의 난점은 야기되지 않는다. 그러나 변수 P에 대체될 수 있는 것들을 무제한적으로 관계로까지 확장할 경우 개체의 구분이나 개체의 동일성을 결정하는 원리로서의 PII와 CPII는 잉여적인 법칙에 불과하게 된다. 모든 개체는 자기 자신과 동일하고, 따라서 모든 개체는 자기 자신과 동일함(자신과 동일하다는 관계)이라는 속성을 갖는다. 한 개체 a는 자기 자신인 a와 동일하다는 관계를 가지고 있고, a 이외의 다른 개체들은 a와 동일하다는 관계를 가질 수 없다. 따라서 변수 P에 대체될 수 있는 속성들의 범위를 무제한적으로 관계에까지 확장하면 개체의 구분이나 개체의 동일성을 결정하기 위한 원리로 PII나 CPII에 의존할 필요가 없게 된다. 모든 개체 각각은 자신과 동일함이라는 속성을 가지고 있을 것이므로 모든 속성을 공유하느냐의 여부가 아니라, ‘자신과 동일함’이라는 하나의 속성을 가지고 있느냐의 여부에 의해서 개체의 동일성이 결정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8)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일부의 논리학자들은 “모든 개체 x와 y에 대해서 x가 참인 모든 것에 대해서 y가 참이고 y가 참인 모든 것에 대해서 x도 참이면 x와 y는 동일한 개체이다”라는 식으로 PII를 해석하고 있다. C. J. F. Williams, *What is Identity?*(Oxford: Clarendon Press, 1989.)를 참조하라.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라이프니츠의 법칙을 읽는 대표적인 해석 방법인 A)에서 변수 P에 대체될 수 있는 속성들에 'a와 동일함'과 같은 명목적 속성들이 포함되지 않도록 제한되어야 한다. 이렇게 볼 때, PII와 CPII가 개체의 구분이나 개체의 동일성의 원리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변수 P에 대체될 수 있는 속성들과 관련된 두 가지 조건들이 만족되어야 한다. 첫째로, 변수 P에 대체될 수 있는 속성들은 관계들을 포함할 수 있게끔 확장되어 해석되어야 한다. 둘째로, 변수 P의 값이 될 수 있는 속성들은 '개체 a와 동일함'과 같은 명목적 속성들이 아니라 개체들의 질적 차이를 드러낼 수 있는 명목적이 아닌 실질적인 질적 속성들⁹⁾에 국한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두 가지 조건이 만족되도록 PII와 CPII를 해석하면 라이프니츠의 법칙에 대한 대표적인 해석인 A)는 A')와 같이 고쳐져야 될 것이다.

A') PII : 모든 개체 x와 y에 대해서 x와 y가 모든 실질적인 질적 속성들을 공유하고 있으면 x와 y는 동일한 개체이다.

CPII : 모든 개체 x와 y에 대해서 x와 y가 동일한 개체이면 x와 y는 모든 실질적인 질적 속성들을 공유해야 한다. (여기서 실질적인 질적 속성들은 관계들을 포함하지만 '개체 a와 동일함'과 같은 명목적인 속성들은 포함하지 않는다.)

III

라이프니츠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 반례를 제시함으로써 개별화의 원칙으로서의 라이프니츠의 법칙의 정당성을 의문시하는 논증들이 다수의 철학자들에 의해 제시되었다. 이 중 가장 대표적

9) R. Adams는 property와 suchness와 non-relational suchness를 구별하고 있다. 실질적인 질적 속성은 아담스의 구분 중 suchness에 해당한다. R. Adams, "Primitive Thisness and Primitive Identity", J. P.(1979)를 참조하라.

인 것은 블랙의 논증이라고 할 수 있다.

블랙에 따르면 우리는 모든 질적인 속성들을 공유하고 있는 두 개의 커다란 쇠로 구성된 구체(球體)들을 포함하고 있는 우주를 상상할 수 있다. 만약 두 개의 구체들의 크기, 모양, 화학적 구성 성분, 색깔들이 동일하다면 이 두 구체들은 모든 질적인 속성들을 공유하고 있는 셈이다. 또한 블랙의 우주는 오직 이 두 구체만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두 구체들은 모든 관계로서의 질적 속성들도 공유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 예로 두 구체들 각각은 상대로부터 일정한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는 관계로서의 질적 속성을 공유하고 있다. 블랙에 따르면 이러한 우주에서는 라이프니츠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두 구체들은 모든 실질적인 질적 속성들을 공유하고 있지만 두 구체들은 일정한 한 시간에 하나의 공간 속의 다른 위치에 존재하고 있으므로 두 구체는 하나의 동일한 개체일 수 없기 때문이다. 블랙의 우주 속의 구체들을 각기 a와 b로 명명하면 a와 b는 모든 실질적인 질적 속성들을 공유하고 있지만, a와 b는 한 순간에 다른 장소에 위치하고 있고, 또한 하나의 동일한 개체가 한 순간에 공간적으로 떨어진 두 개의 장소에 존재할 수 없으므로 a와 b는 하나의 동일한 개체일 수 없다. 따라서 블랙의 우주에 따르면 D)가 성립하고 D)는 PII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D) \quad (\forall P)(Pa \leftrightarrow Pb) \rightarrow a = b$$

블랙에 따르면 자신의 예와 같이 모든 실질적인 질적 속성들을 공유하고 있는 서로 다른 두 개의 개체가 존재할 가능성은 모순 없이 상상될 수 있다. 따라서 블랙의 우주는 실제로 참은 아니지만 논리적으로 가능하다. 또한 두 개의 서로 다른 개체들이 모든 실질적인 질적 속성들을 공유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가능하다면

라이프니츠의 법칙은 거짓일 가능성이 있고, 따라서 필연적이거나 논리적 진실이 아닌 우연적인 참에 불과하게 된다.

라이프니츠의 법칙의 반례가 블랙에 의해 제시된 이래 많은 철학자들은 개별화의 원칙으로서의 라이프니츠의 법칙의 정당성을 의심하게 되었다. 케술로(A. Casullo)¹⁰⁾와 같은 많은 철학자들은 PII는 필연적 참이 아닌 우연적 참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였다. 심지어 레드헤드(M. Redhead)¹¹⁾나 프렌치(S. French)¹²⁾와 같은 철학자들은 양자역학에서의 최근의 발견에 근거하여 PII는 우연적 참도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고, 호이(R. C. Hoy)¹³⁾는 이러한 입장에 동의하여 PII를 오직 하나의 유용한 방법론적인 원칙에 불과한 것으로 취급하고 있다.

라이프니츠의 법칙의 논리적 위상에 대한 학계의 이러한 부정적 입장에도 불구하고 개별화의 원칙으로서의 라이프니츠의 법칙을 옹호하려는 시도들이 있었다. 여기에서는 가장 본격적이고 철학적으로 심각한 논란을 야기한 헷킹의 시도를 포함하여 라이프니츠의 법칙을 옹호하는 두 가지 시도에 대해 살펴보겠다.

블랙의 논증을 반박하는 가장 직접적인 시도는 블랙의 우주 속의 두 구체들이 위치한 시공적 차이점에 의거하는 것이다. 블랙의 우주는 두 개의 구체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이들은 공간적으로 서로 다른 위치에 존재해야 한다. 블랙의 우주 속의 하나의 구체를 a라 명명하면 한 구체는 'a로부터 일정한 거리에 위치하고 있

10) A. Casullo, "Particulars, Substrata, and the Identity of Indiscernibles", *Philosophy of Science*(1982).

11) M. Redhead & S. French, "Quantum Physics and the Identity of Indiscernibles", *British Journal for the Philosophy of Science*(1989).

12) S. French, "Hacking Away at the Identity of Indiscernibles: Possible Worlds and Einstein's Principle of Equivalence", (*J. P.*), 1995.

13) R. C. Hoy, "Inquiry, Intrinsic Properties, and the Identity of Indiscernibles", *Synthese*(1984).

다’는 속성을 가진 반면, 다른 구체는 이 속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 두 구체 중 하나는 a로부터 일정한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 반면, 다른 한 구체는 이 속성을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두 구체는 모든 속성을 공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a로부터 일정한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는 속성을 PII나 CPII의 변수 P에 대체될 수 있는 속성으로 간주한다면 블랙의 우주 속의 두 개의 구체는 적어도 하나의 속성을 공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라이프니츠의 법칙의 반례가 아니게 된다.

그러나 ‘a로부터 일정한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와 같은 속성에 의거하여 개별화의 원칙으로서의 라이프니츠의 법칙을 옹호하려는 시도는 블랙이 제기한 문제의 핵심을 파악하지 못한 시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앞에서 우리는 라이프니츠의 법칙의 2차 술어논리에서의 표현인 PII와 CPII에서 2차 양화변수 P에 대체될 수 있는 속성들은 명목적인 속성들이 아니고 개체들의 질적 차이를 드러낼 수 있는 실질적인 질적 속성들에 국한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았다. 따라서 블랙의 반례로부터 라이프니츠의 법칙을 방어하려는 이러한 시도가 성공적이라면 ‘a로부터 일정한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와 같은 속성이 개체들의 질적 차이를 드러낼 수 있는 실질적인 질적 속성이어야만 한다. 그러나 블랙의 우주는 질적으로 동일한 두 개의 구체만을 포함하고 있는 우주이므로 두 개의 구체들을 구별하여 그 중 하나를 a로 확인할 어떠한 방법도 우리에게 열려 있지 않다. 만약 두 구체들을 구별하여 그 중 하나를 a로 확인할 수 없다면 ‘a로부터 일정한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는 속성은 개체들의 질적 차이를 나타내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질적 속성이라 할 수 없다.¹⁴⁾ 또한 라이프니츠의 법칙의

14) M. Black, "The Identity of Indiscernibles", in *Universals and Particulars*(M. J. Loux(ed.), Garden City: Anchor Books), 208쪽.

핵심은 개체들의 질적 차이에 의해서 개체들이 구별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a로부터 일정한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와 같은 속성에 의거하여 라이프니츠의 법칙을 방어하려는 시도는 라이프니츠의 법칙의 핵심적 내용과도 배치되는 헛된 시도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

IV

1975년에 발표된 논문에서 헛킹은 개별화의 원칙으로서의 라이프니츠의 법칙을 옹호하는 가장 본격적이고 진지한 시도를 수행하고 있다. 헛킹은 PII는 가능세계들에 대한 메타 원리로 간주되어야 하므로 칸트나 블랙이 제시한 예들은 PII의 반례로 간주될 수 없고, 따라서 PII의 정당성 여부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¹⁵⁾ 이러한 그의 주장은 그가 고수하고 있는 인습주의와 가능세계에 관한 그의 견해에 근거하고 있다.

시공간에 대한 인습주의는 하나의 물리적 사태를 묘사하는 기술(가능세계)들이 그 물리적 사태가 근거하고 있는 인과적 구조의 측면에서 구별될 수 없으면 이들 기술들은 동일한 물리적 사태를 묘사하고 있으므로 동일한 것으로 취급되어야 하고, 이들 기술(가능세계) 중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는 전적으로 인습적이고 실용적인 측면에서 결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의 견해이다.¹⁶⁾ 따라서 이 견해에 따르면 두 가능세계 W_1 과 W_2 에서 적용되는 자연법칙이 서로 다를지라도 동일한 물리적 사태를 묘사하고 있는 한 W_1 과 W_2 는 동일한 위상을 갖는 것으로 취급되어야 한다.

물리적 사태를 묘사하는 기술에 대한 이러한 인습주의적 입장

15) Hacking의 앞의 글, 255~56쪽.

16) 인습주의를 위해서는 R. Carnap의 *The Philosophical Foundation of Physics* (Basic Books, 1996)을 참조하라.

은 시공간에 대한 이들의 상대주의적 입장에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인습주의자들에 따르면 시공 속에 존재하는 대상들에 귀속되는 자연법칙들에 대한 규정이 선행되지 않는 한 대상들이 속한 세계의 시공관계는 미결정인 채로 남아 있고 오직 일정한 자연법칙이 적용되고 난 후에야 그에 따라 대상들이 속한 세계의 일정한 시공관계가 성립될 수 있다. 따라서 만약 일정한 자연법칙을 적용한 가능세계(시공간에 대한 기술)에서 성립되는 물리적 사태가 다른 자연법칙들을 적용한 다른 가능세계에서도 성립할 경우 어느 가능세계가 그 물리적 사태를 정확하게 기술하는 가능세계인가는 원칙적으로 미결정인 채로 남아 있을 수밖에 없다.

시공간에 대한 헛킹의 인습주의적 견해는 가능성과 가능세계에 대한 그의 독특한 입장을 형성하게 한다. 앞에서 보았듯이 인습주의자들에 의하면 세계를 구성하는 대상들에 적용되는 자연법칙이 전제되지 않는 한 그 세계의 시공적 관계는 미결정인 채로 남아 있다. 따라서 하나의 가능성을 묘사하는 가능세계 W 에서 대상들에 적용되는 자연법칙이 규정되지 않았다면 그 세계의 시공적 관계는 미결정인 채로 남는 셈이다. 결국 W 는 문제되는 가능성을 완벽하게 나타내주는 가능세계라 할 수 없다. 이러한 입장에서 헛킹은 단순한 상상의 가능성과 진정한 가능성은 엄격히 구별되어야 하고 아무리 회화적이고 그럴듯하다고 할지라도 그 표상의 내용이 자연법칙에 의해 설명되지 않는 한 그 표상은 가능세계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¹⁷⁾ 이러한 입장에 따르면 일정한 물리적 사태가 존재할 가능성을 나타내는 단순한 진술은 그 자체로는 가능세계로 취급될 수 없고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가능세계로 간주되기 위해서는 자연법칙 등에 근거하

17) Hacking의 앞의 글, 250쪽.

여 그 진술을 정당화시킬 수 있게 하는 논증이 요구된다.

헷킹이 견지하고 있는 시공간에 대한 인습주의적 입장과 이에 근거한 가능세계에 대한 그의 견해를 종합하면 블랙과 칸트 등에 의해 제시된 예들은 라이프니츠의 법칙에 대한 반례가 될 수 없다는 결론이 도출된다. 블랙에 따르면 질적으로 구별될 수 없는 두개의 개체를 포함하고 있는 세계는 모순 없이 상상될 수 있으므로 PII는 논리적 진실이 아니다. 그러나 가능세계에 대한 헷킹의 견해에 따르면 블랙의 우주는 가능세계로 간주될 수 없다. 블랙은 단지 질적으로 구별될 수 없는 두 개의 개체를 포함하고 있는 우주가 모순 없이 상상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자연법칙 등에 근거하여 이러한 우주가 어떻게 성립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가능세계이기 위한 헷킹의 기준에 따르면 블랙의 우주는 완전한 가능성을 나타내준 것이 아니고, 따라서 가능세계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다. 또한 그의 우주가 가능세계의 역할을 할 수 없다면 블랙의 예는 라이프니츠의 법칙에 대한 반례로 간주될 수 없고 PII는 논리적 진실이 아니라는 주장은 성립할 수 없다. 가능세계 의미론에 따르면 PII가 거짓인 가능세계가 있어야만 PII는 논리적 진실이 아니기 때문이다.

헷킹에 따르면 블랙의 우주와 같이 질적으로 구별될 수 없는 두 개체만을 포함하고 있는 세계는 우리가 살고 있는 실제세계로부터 추상과정을 통해 구성된 것이라는 주장도 성립될 수 없다. 자연법칙에 근거하여 이러한 세계의 성립 가능성이 설득력 있게 설명되지 않는 한 이러한 주장은 단순히 맹목적인 주장에 불과하고 따라서 완전한 가능성을 나타내는 가능세계의 역할을 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설혹 질적으로 구별 불가능한 두 개의 개체들만을 포함하고 있는 세계에 대한 일정한 자연법칙에 근거한

설득력 있는 기술로서의 가능세계 W 가 성립한다고 해도 시공간에 대한 인습주의에 의하면 W 는 PII의 반례로 간주될 수 없다. W 에서와 다른 자연법칙들을 적용하여 W 에서와 동일한 물리적 사태가 성립하되 그 안에서 개별자의 원칙으로서 PII가 보존되는 가능세계 W' 이 구성될 수 있고 이 경우 인습주의에 따르면 W 와 W' 중 어느 것이 그 물리적 사태를 정확하게 나타내는 가능세계인가는 원칙적으로 결정될 수 없기 때문이다. 헷킹에 따르면 시공속에 존재하는 대상들에 귀속되는 자연법칙의 규정이 선행되지 않는한 그 대상들이 속한 세계의 시공적 관계는 미결정 상태이므로 W 와 W' 중 어느 세계를 선택해야 하는가는 실용성에 의존해야 한다. 또한 PII는 매우 실용적이고 유용한 법칙이므로 인습주의에 따르면 W 와 W' 중 그 물리적 사태를 정확하게 나타내는 가능세계는 PII가 보존되는 W' 이 선택되어야 한다.

시공간에 대한 인습주의적 입장과 가능세계에 대한 그의 견해를 받아들이면 PII는 가능세계에 대한 기준의 역할을 하는 원칙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PII에 대한 반례로 간주될 수 있는 어떠한 기술(가능세계)도 다른 자연법칙 등을 적용하여 PII가 보존되게 재구성될 수 있고 인습주의에 따르면 PII가 보존되는 기술만이 가능세계로 간주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견지에 입각하여 헷킹은 PII를 모든 가능세계들이 반드시 만족시켜야 하는 가능세계에 관한 메타 원칙으로 간주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PII는 가능성에 대한 기술이 가능세계로 간주될 수 있기 위해서 반드시 지켜져야 할 가능세계에 대한 형이상학적 원칙이다. 이 원칙에 따르면 PII에 대한 반례를 나타내는 어떠한 기술도 가능세계로 간주될 수 없고, 따라서 PII가 논리적 진실이 아니라는 주장은 근본적으로 성립할 수 없게 된다.

V

라이프니츠의 법칙을 옹호하기 위한 헷킹의 주장에 대한 가장 직접적인 비판은 그의 입장이 논리적 가능성과 물리적 가능성 사이의 구별을 불가능하게 한다는 데에서 찾을 수 있다. 헷킹에 따르면 시공 속에 존재하는 대상들에 적용되는 자연법칙에 따른 시공관계에 대한 규정이 없는 일관성이 있는 단순한 기술은 하나의 가능성을 나타내는 가능세계로 간주될 수 없고, 그것이 가능세계의 역할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자연법칙에 근거한 설득력 있는 설명이 요구된다. 그러나 가능세계에 대한 이러한 그의 입장은 우리의 상식적인 상상적 견해와 배치된다고 할 수 있다. 하나의 가능성을 나타내는 기술이 모순이 도출되지 않는 일관성 있는 기술일 경우 그 기술은 하나의 논리적 가능성을 나타내주는 것으로 간주되어야 하고, 시공 속에 존재하는 대상들에 적용되는 자연법칙에 근거하여 시공간 관계가 규정되어야 한다는 헷킹의 요구를 만족시키는 기술은 하나의 물리적 가능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상식적인 상상적 견해일 것이기 때문이다.

일부의 철학자들은 이러한 상식적인 상상적 견해에 근거하여 헷킹을 비판하고 있다. 이들에 따르면 그는 단순히 논리적 가능성과 물리적 가능성을 혼동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따라서 모순이 없는 일관성이 있는 기술인 블랙이나 칸트가 제시한 PII의 반례들은 PII가 논리적 진술이 아닐 가능성을 보여주는 진정한 예로 간주되어야 한다. 한 예로 덴켈(A. Denkel)은 “우리는 블랙이 한 것처럼 어떤 자연법칙이 적용되는 세계이고 그 세계 속에 두 개의 대상을 배치시키고 그들이 질적으로 구별 불가능하게끔 일관성 있게 기술함에 의해 PII의 반례를 구성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¹⁸⁾ 비록 이들의 주장이 논리적 가능성에 대한 상식적 견해에

근거한 것이지만, 헷킹이 견지하고 있는 가능세계에 대한 견해와 인습주의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보이지 않는 한 이들의 주장은 그에 대한 결정적인 비판으로 간주될 수는 없다. 헷킹에 의하면 하나의 가능성을 시사하는 단순히 일관성 있는 진술은 진정한 가능성을 나타내는 가능세계의 역할을 할 수 없고, 설혹 일정한 자연법칙에 의해 규정된 시공관계를 가진 세계 안에서 질적으로 구별 불가능한 두 개체를 포함하고 있는 기술을 구성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항상 다른 자연법칙들을 적용하여 동일한 물리적 사태가 성립하지만 그 안에서 PII가 보존되는 기술을 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시공간에 대한 인습주의에 따르면 PII가 보존되는 기술만이 가능세계로 간주되어야 한다. 따라서 헷킹에 의하면 논리적 가능성과 물리적 가능성 사이의 명확한 이론적인 구분이 선행되지 않는 한 상식적인 양상적 견해에 의존한 이들의 주장은 “논리적 가능성과 물리적 가능성의 진정한 차이가 무엇인가?”라는 새로운 질문을 야기하는 주장에 불과하게 된다.¹⁹⁾

그러나 헷킹의 이러한 입장은 가능세계 의미론과 관련하여 중요한 문제점들을 야기하고 있다. 여기서는 이들 문제점들 중 가장 심각하고 중요한 것으로 여겨지는 두 가지만을 살펴보겠다. 우리가 살펴볼 라이프니츠의 법칙을 옹호하는 헷킹의 견해가 야기하는 첫 번째 문제점은 그의 입장은 가능세계 의미론에 입각한 양상명제들의 해석의 범위를 제한하게 한다는 것이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헷킹에 따르면 모든 가능세계는 대상들에 적용된 자

18) A. Denkel, “Principia Individuationis”, *Philosophical Quarterly*(1991).

19) G. Landini와 T. Foster는 Logical realism과 attribute realism, 그리고 natural realism을 구분하고 블랙의 반례가 적용되는 attribute realism에서 논리적 가능성과 물리적 가능성은 명확하게 구분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G. Landini & T. Foster, “The Persistence of Counterexample: Re-examining the Debate over Leibniz’s Law”, *Nous*(1991)를 참조하라.

연법칙에 근거한 시공간적 관계에 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규정이 없는 하나의 가능성에 대한 일관적인 기술은 가능세계의 역할을 할 수 없고 모순 없는 일관성 있는 기술로서의 논리적 가능성은 성립하지 않는다. 결국 헛킹의 가능세계에 대한 견해에 따르면 가능세계는 자연법칙에 의해 시공간적 관계가 규정된 물리적 세계이어야 한다.

가능세계에 대한 이러한 입장을 받아들이면 아래의 E)의 명제들은 단지 물리적으로 필연명제일 뿐 아니라 논리적으로도 형이상학적으로도 필연명제이어야 한다. 헛킹의 기준에 따르면 E)의 세 명제들이 제시하는 기준을 만족시키는 것만이 가능세계의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 E) 1) 세계는 물리적 세계이다.
 2) 세계 속의 모든 대상들은 일정한 자연법칙을 따르는 시공간적 관계 속에 있다.
 3) 세계는 반드시 대상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²⁰⁾

그러나 E)의 명제들이 물리적으로만이 아니라 논리적으로도 형이상학적으로도 필연적으로 참이라는 귀결은 우리의 건전한 양상적 직관에 명백히 위배된다. 만약 E)의 명제들이 논리적으로도 형이상학적으로도 필연명제이면 아래의 F)의 명제들은 참일 가능성이 없는 필연적으로 거짓인 명제이어야 한다.

- F) 1) 정신적 세계가 존재한다.
 2) 이 세계는 자연법칙에 근거한 시공간적 관계가 적용되지 않는 정신적 세계이다.
 3) 아무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²¹⁾

20) E)의 1)과 2)가 필연명제라는 것은 가능세계이기 위한 헛킹의 기준에 따른 직접적인 귀결이고 E)의 3)이 필연명제라는 것은 시공간 관계가 규정되는 자연법칙들은 대상들에 적용되어야 한다는 그의 입장에서부터의 필연적 귀결이다.

F)의 명제들은 물리적인 가능성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들 명제들이 기술하는 상황들이 모순 없이 상상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들은 최소한 형이상학적으로 가능한 명제라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전한 상상적 직관이다. 또한 실제로 일부의 철학자들이나 많은 독실한 종교인들은 이들 명제들을 참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따라서 PII를 옹호하려는 헛킹의 시도는 우리가 가진 건전한 상상적 직관들에 대한 가능세계 의미론에 따른 해석을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그의 이론에서 'F)의 명제들이 최소한 형이상학적으로 가능하다'는 건전한 상상적 직관들이 가능세계 의미론에서 설명될 수 없는 이유는 시공간에 대한 인습주의에 입각한 그의 가능세계에 대한 견해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그의 입장은 근본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 가능세계 의미론이란 상상명제들의 의미를 해석해주기 위한 이론이고 가능세계 의미론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인 가능세계들은 가능세계 의미론을 구성하는 논리적 도구에 불과하다. 따라서 가능세계에 대한 규정이나 견해들은 상상명제들의 의미에 대한 건전한 상상적 직관들의 수용이 가능하게끔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앞에서 보았듯이 헛킹의 이론에서는 우리의 건전한 상상적 직관들이 수용될 수 없고 도리어 가능세계에 대한 그의 견해들에 의해 우리의 상상적 직관들이 제한되고 있다. 결국 헛킹의 이론에서는 해석을 위한 도구에 대한 견해에 의해 해석될 수 있는 범위가 규정되고 있는 셈이다.

21) D. M. Armstrong은 '아무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와 같은 명제는 참일 가능성이 없는 명제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그가 주장하고 있는 Combinatorial Theory라는 구성주의적 가능세계이론을 받아들인 귀결에 불과하다. R. M. Armstrong의 *A Combinatorial Theory of Possibility*(New York: Cambridge, 1980)를 참조하라.

VI

앞에서 우리는 라이프니츠의 법칙을 옹호하려는 헷킹의 시도는 가능세계 의미론에 의한 양상명제들의 의미에 대한 해석의 범위를 제한하게 한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헷킹의 시도가 야기하는 중요한 다른 문제점은 그의 견해는 양상 문맥에서의 헤세이티즘²²⁾의 수용을 거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문제는 V에서 살펴본 문제와 마찬가지로 매우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이다. 필자의 견해로는 헤세이티즘의 수용은 De-Re 양상명제의 의미에 대한 성공적인 의미론적 해석을 위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헤세이티즘²³⁾이란 질적인 속성에 의존하지 않고도 대상들을 표상하거나 지시할 수 있다는 이론이다.²⁴⁾ 양상문맥에서의 헤세이티즘이란 개체들의 관계를 포함한 질적 속성에 의존하지 않고 개체들이 실제와 다를 가능성을 나타내는 가능세계를 구성할 수 있

22) 헤세이티즘(Haecceitism)은 'haecceity'(라틴어로는 haecceitas)로부터 유래된 용어이다. 헤세이티즘이란 질적 속성에 의존하지 않고 대상들을 지시하거나 표상할 수 있다는 이론이다. 헤세이티즘에 대해서는 필자의 논문, 「헤세이티스틱 양상현실론」(『동서철학연구』, 12호, 1995)을 참조하라.

23) 'haecceity'는 영어의 'thisness'에 해당하는 용어이다. 일부 철학자들은 thisness를 개체의 본질이라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입장은 'thisness'를 일종의 질적 속성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으로 헤세이티즘에서 수용될 수 없는 입장이다. 헤세이티즘의 핵심은 개체들이 소유한 질적 속성에 의존하지 않고도 개체들을 표상하거나 지시할 수 있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A. Plantinga의 *The Nature of Necessity*(Oxford: Clarendon Press, 1974), 71쪽을 참조하라.

24) 몇몇 유명한 철학자들에 의해 일상문맥에서 개체들의 질적 속성들에 의존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개체들을 지시하거나 표상할 수 있는 성공적인 예들이 제시되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논문들을 참조하라, K. S. Donnellan의 "Reference and Definite Descriptions", *Philosophical Review*(1996)와 "Propernames and Identifying Descriptions" in *The Semantics of Natural Languages*(D. Davidson. & G. Harman(eds.), Boston: Reidel, 1972), S. Kripke, "Naming and Necessity" in *The Semantics of Natural Languages*, J. Perry, "Frege on Demonstratives", *Philosophical Review*(1977).

다는 이론이다. 따라서 가능세계 속에서의 가능 개체들의 존재를 인정하는 양상실재론의 체계에서 헤세이티즘을 설명한다면 헤세이티즘은 개체들이 소유한 관계를 포함한 질적 속성에 의존하지 않고도 다른 가능세계들에 존재하는 개체들이 동일한 개체라는 것이 이해될 수 있다는 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²⁵⁾

PII를 옹호하는 헛킹의 입장은 헤세이티즘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헤세이티즘에 따르면 개체들이 소유한 질적 속성들과 관계없이 다른 가능세계들 사이의 개체들의 동일성 관계가 성립될 수 있는 반면에 PII를 고수하는 입장에서는 개체들의 동일성은 개체들이 질적 속성들을 공유하고 있느냐의 여부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한 예로, 헤세이티즘에 따르면 개체들의 질적 속성들에 의존하지 않고도 개체들이 실제와 다를 가능성이 표상될 수 있으므로 헤세이티즘에서는 질적으로 구별될 수 없는 서로 다른 두 개체를 포함하고 있는 가능세계가 표상될 수 있는 반면에 헛킹의 입장에서는 PII가 가능세계에 대한 메타 원칙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가능성을 나타내는 가능세계는 존재할 수 없다.

De-Re 표상과 관련되어 헤세이티즘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De-Re 명제의 의미에 대한 가능세계 의미론에서의 해석은 근본적인 한계를 가지게 된다. 이를 살펴보기 위해 한 개체 A와 다른 개체 B가 아래와 같은 속성들을 소유하고 있다고 가정하겠다.

- G) A가 가진 속성들 - $P_1 \dots P_{97}, P_{99}, P_{101}$
 B가 가진 속성들 - $P_1 \dots P_{98}, P_{100}$

이 경우 A는 B에 대해 P_{98} 과 P_{100} 대신 P_{99} 와 P_{101} 을 소유하고 있다는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여기서 $P_{98}, P_{99}, P_{100}, P_{101}$ 은 머리카락의

25) 양상 문맥에서의 이러한 입장은 캐플란의 입장을 따른 것이다. D. Kaplan, "How to Russell a Frege-Church", *J. P.*(1975), 716~29쪽.

수와 같은 사소한 속성들로 간주하겠다.) A와 B 두 개체들이 세계를 구성하는 개체들의 일부로서 포함되어 있는 세계 W는 가능하고, W에서 A와 B는 모든 실질적인 질적 속성들을 공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A와 B는 질적으로 구별 가능하고, 따라서 W는 헛킹의 기준을 만족시키는 가능세계라 할 수 있다. P_{99} , P_{98} , P_{100} , P_{101} 은 사소한 속성들이므로 아래의 명제 H)는 W에서 볼 때 참일 가능성이 있는 명제이다.

- H) A가 P_{99} 와 P_{101} 대신 P_{98} 과 P_{100} 을 소유하고
B가 P_{98} 과 P_{100} 대신 P_{99} 와 P_{101} 을 소유하고 있다.

그러나 헤세이티즘을 수용하지 않고 개체의 동일성을 개체들이 소유한 질적 속성들에 의해 판단하면 H가 참일 가능성이 있는 명제라는 사실은 설명될 수 없다. W에서의 A는 W에서의 B와 동일한 속성들을 소유하고 있고 W에서는 B는 W에서의 A와 동일한 속성들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PII에 따라 W에서의 A와 W의 B는 동일한 개체이고 W에서의 B는 W에서의 A와 동일한 개체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헤세이티즘을 거부하는 헛킹의 이론에서는 H)와 같은 De-Re 명제에 대한 의미론적 해석은 불가능해진다.

헤세이티즘이 수용될 수 없는 가능세계에 대한 헛킹의 견해는 De-Re 표상과 관련된 우리의 건전한 직관에 위배된다는 것을 하나의 예를 통해 살펴보겠다.

W는 오직 두 개의 별 a와 b로 구성되어 있고 a와 b는 그 중심 부분을 구성하는 화학 성분의 미세한 차이를 제외한 모든 질적인 속성들이 동일한 가능세계라고 가정하자. 또한 W에서 a에 거주하는 생명체들과 b에 거주하는 생명체들은, a에 거주하는 생명체들은 a에 거주하고 b에 거주하는 생명체들은 b에 거주한다는 것

을 제외하면 동일한 질적 속성들을 소유하고 있다고 가정하자. a와 b는 그 중심 부분의 화학 성분에서 차이를 보이므로 W는 PII가 성립하지 않는 기술은 가능세계로 간주할 수 없다는 헷킹의 가능세계에 대한 메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가능세계라 할 수 있다. W에서 우주를 구성하는 두 별들 중 하나가 사라지는 것과 두 별의 중심 부분을 구성하는 화학 성분이 W와 미세한 차이를 보이는 것은 형이상학적으로도 논리적으로도 가능하다. 따라서 두 별들 중 하나인 b가 사라질 가능성을 나타내는 W_1 과 b의 중심 부분이 W에서의 a의 중심 부분의 화학성분과 동일하게 구성되고 a가 사라질 가능성을 나타내는 W_2 는 W로부터 가능한 가능세계라 할 수 있다. W_1 과 W_2 는 서로 극단적으로 상이한 가능성들을 표상하고 있는 가능세계이다.²⁶⁾ W_1 은 a의 거주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속한 별이 최후를 맞을 가능성을 나타내고 있고 W_2 는 b의 거주자는 생존하는 대신 다른 별 a의 거주자와 a가 사라질 가능성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W_1 에서의 a와 W_2 에서의 b는 이들이 소유한 질적인 속성의 면에서 여하한 차이도 없으므로 W_1 과 W_2 는 질적으로 구별될 수 없는 가능세계들이고, 헷킹이 견지하고 있는 시공간에 대한 인습주의에 의하면 W_1 과 W_2 는 동일한 하나의 가능세계로 취급되어야 한다. 결국 PII를 가능세계가 만족시켜야 할 메타 원칙으로 간주하고 있는 헷킹의 이론에서는 W_1 과 W_2 로 나타내고 있는 서로 극단적으로 상이한 가능성들의 표상이 불가능하게 된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헤세이티즘을 거부하고 PII를 가능세계에

26) R. Adams는 질적으로 구별될 수 없는 두개의 개체를 이용하여 이와 비슷한 예를 제시하고 있다. R. Adams, "Primitive Thisness and Primitive Identity", *J. P.*(1979)를 참조하라. 또한 S. Shoemaker는 사건이 발생하지 않는 세계를 구성하여 비슷한 예를 제시하고 있다. S. Shoemaker, "Time without Change", *J. P.*(1969).

대한 메타 원칙으로 간주하는 헷킹의 입장은 주로 그가 고수하고 있는 시공간에 대한 인습주의에 뿌리를 두고 있다. 그러나 가능세계에 대한 그의 견해가 근거를 두고 있는 인습주의는 헷킹의 생각처럼 쉽게 옹호될 수 있는 입장으로 보이지 않는다. 인습주의에 따르면 하나의 물리적 사태를 묘사하는 서로 다른 기술들이 그 물리적 사태가 근거하고 있는 인과적 구조 등의 측면에서 구별될 수 없으면 이들 다른 기술들은 동일한 물리적 사태를 묘사하고 있는 것이고, 그 물리적 사태에 대한 동일한 기술이다. 따라서 인습주의에서는 두 개의 가능세계 W 와 W' 에서 적용되는 자연법칙들이 서로 달라 W 와 W' 가 시공간 관계에 대해 각기 상이한 규정을 하고 있을지라도 동일한 물리적 사태를 묘사하는 한 두 가능세계들은 하나의 동일한 가능성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취급되어야 한다.

그러나 필자의 생각으로는 묘사되고 있는 물리적 사태가 동일하게 보일지라도 대상들에 적용되는 자연법칙이 다르다면 두 가능세계들은 서로 다른 물리적 사태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W 와 W' 에서 묘사되는 물리적 사태가 동일하게 보일지라도 만약 대상들에 적용되는 자연법칙이 다르기에 따라 서로 다른 시공간 관계가 규정된다면 W 에서 묘사되고 있는 물리적 사태가 근거하고 있는 인과적 구조와 W' 에서 묘사되고 있는 물리적 사태가 근거하고 있는 인과적 구조는 서로 다를 것이기 때문이다.

헷킹은 인습주의를 옹호하기 위한 대표적인 예로 뉴턴과 마흐(E. Mach)의 논쟁을 들고 있다. 뉴턴은 공간에 대한 상대주의적 견해로부터 자신의 이론을 옹호하기 위해 물이 담긴 물통의 예를 들고 있다.²⁷⁾ 그는 물통 이외의 어떤 다른 대상을 지시함이 없이도 원심력에 의해 야기된 물통 주위의 수면의 상승 여부를 관찰

함에 의해 물통의 회전 여부가 결정될 수 있고, 따라서 공간에 대한 상대주의적 견해는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헛킹은 다른 자연법칙을 사용하면 물통이 회전하고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도 물통 주위의 수면이 상승했다는 물리적 사태를 설명할 수 있으므로 뉴턴의 반박은 성립할 수 없다는 마흐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있다.²⁸⁾

헛킹에 따르면 뉴턴의 세계와 마흐의 세계는 비록 적용되는 자연법칙들이 다를지라도 물통 주위의 수면이 상승했다는 동일한 물리적 사태를 기술하고 있으므로 이들은 동일한 가능세계이다. 그러나 이러한 헛킹의 주장은 명백한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뉴턴의 세계와 마흐의 세계는 물통 주위의 수면이 상승했다는 점에서는 일치하지만 뉴턴의 세계에서는 물통이 실제로 회전하고 있고 마흐의 세계에서는 물통이 회전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뉴턴의 세계에서의 물통의 회전에 의해 물통 주위의 수면이 상승한 물리적 사태는 물통이 회전하지 않고 있는 마흐의 물리적 세계와 근본적으로 다른 물리적 사태이다.²⁹⁾ 뉴턴의 세계에서의 물리적 사태와 마흐의 세계에서의 물리적 사태가 서로 다른 물리적 사태라면 이들 두 물리적 사태가 근거하고 있는 인과구조도 다를 것이고 뉴턴과 마흐는 각기 다른 물리적 사태들을 나타내고 있는 셈이다.³⁰⁾

27) I. Newton, *Principia*, 3rd edition(London, 1726), 10~11쪽.

28) Mach의 입장을 지지하는 대표적인 설명은 H. Reichenbach의 *The Philosophy of Space and Time*(New York: Dover Publications) 212쪽에서 찾을 수 있다.

29) 필자의 이러한 입장은 S. French의 입장을 따른 것이다. S. French의 앞의 글을 참조하라.

30) 블랙의 우주에서 PII가 보존되게끔 가능세계 W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W의 우주의 공간은 비유클리드 기하학적인 공간이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럴 경우 블랙의 우주와 W는 각기 다른 물리적 사태를 나타내는 것으로 간주되어야 할

참고문헌

- 손병홍, 『세이티스틱 양상현실론』, 동서철학연구, 12호, 1995.
- Adams, R., "Primitive Thisness and Primitive Identity?", *J. P.*, 1979.
- Armstrong, R. M., *A Combinatorial Theory of Possibility*, New York: Cambridge, 1980.
- Black, M., The Identity of Indiscernibles? in *Universals and Particulars*, M. J Loux(ed.), Garden City: Anchor Books.
- Black, M., "The Identity of Indiscernible?", *Mind*, 1952.
- Brody, B., *Identity and Essence*, Princeton Univ. Press., 1980.
- Carnap, R., *The Philosophical Foundation of Physics*, Basic Books, 1996.
- Casullo, A., "Particulars, Substrata, and the Identity of Indiscernibles?", *Philosophy of Science*, 1982.
- Denkel, A., "Principia Individuationis?", *Philosophical Quarterly*, 1991.
- Donnellan, K. S., "Propernames and Identifying Descriptions" in *The Semantics of Natural Languages*, D. Davidson. & G. Harman(eds.), Boston: Reidel, 1972.
- Donnellan, K. S., "Reference and Definite Descriptions?", *Philosophical Review*, 1996.
- French, S., "Hacking Away at the Identity of Indiscernibles: Possible Worlds and Einstein's Principle of Equivalence?", *J. P.*, 1995.
- Hacking, I., "The Identity of Indiscernibles?", *J. P.*, 1975.
- Hoy, R. C., "Inquiry, Intrinsic Properties, and the Identity of Indiscernibles?", *Synthese*, 1984.
- Kaplan, D., "How to Russell a Frege-Church?", *J. P.*, 1975.
- Kripke, S., "Naming and Necessity" in *The Semantics of Natural Languages*.
- Landini, G. & Foster, T., "The Persistence of Counterexample: Re-examining the Debate over Leibniz's Law?" *Nous*, 1991.

것이다. 블랙의 우주는 유클리드 기하학적인 공간이고 두 개의 구체가 존재하는 반면 W의 우주는 비유클리드 기하학적인 공간이고 단지 하나의 구체만이 존재하므로 이 두 세계가 나타내는 물리적 사태와 그 인과구조도 다를 것이기 때문이다.

- Newton, I., *Principia*, 3rd edition, London, 1726.
- Perry, J., "Frege on Demonstratives?", *Philosophical Review*, 1977.
- Plantinga, A., *The Nature of Necessity*, Oxford: Clarendon Press, 1974.
- Redhead, M. & French, S., "Quantum Physics and the Identity of Indiscernibles?", *British Journal for the Philosophy of Science*, 1989.
- Reichenbach, H., *The Philosophy of Space and Time*, New York: Dover Publications.
- Russell, B., *An Inquiry into meaning and Truth*, Baltimore: Penguin, 1972.
- Shoemaker, S., "Time without Change?", *J. P.*, 1969.
- Whitehead, A. and Russel, B., *Principia Mathematica to 56*, Cambridge Univ. Press, 1970.
- Williams, C. J. F., *What is Identity?*, Oxford: Clarendon Press, 1989.